

2020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 컨퍼런스

2020. 12. 10.(목)
[서울 포시즌스 호텔]

「2020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 축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 남 기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입니다.

먼저, 「2020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님, 김흥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KIEP)님,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님, 그리고

기조연설을 해주시는 로버트 졸릭 하버드대 선임연구위원님(前 WB총재)과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올해 3번째를 맞이한 '국민경제 국제컨퍼런스'는 2018년부터 한국경제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사회 이슈에 대한 의견공유와 지혜모음의 장(場)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내년 美 신정부 출범이라는 환경변화에 맞춰 "美 대선 이후 경제통상환경 변화 전망 및 한국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심도있는 논의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美 대선 이후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내외 귀빈 여러분!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는 미국/한국 두 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세계교역, 그리고 다자주의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금년 세계교역이 △10.4%로 감소할 것이라는 IMF 전망(20.10월, WEO)처럼 국경간 이동통제, 경제 락다운 등으로 교역이 크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성장경로 회복을 위한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내년 초 출범하는 美 바이든 행정부가 가져올 경제·통상변화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 다자주의 복귀, 국제 통상여건 개선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 개선과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美 신정부 정책방향과 한국의 대응방향>

이러한 환경하에서 앞으로 韓美 경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새로운 바람과 활력을 일으키기 위해 韓美 양국이 함께 열어야 할 "4가지 협력의 창(窓, Window)"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韓美 양국간 탄탄한 **통상·금융협력의 창입**입니다.

통상은 美 신정부 출범에 따라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중 하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세계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은 완화되는 한편, 노동·환경·인권 등 새로운 이슈들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적으로 통상규범 변화 등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 등 양국간 통상대화를 한 단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앞으로 미국과의 금융협력 강화는 물론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 등에 대해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둘째, 성장엔진 발굴, 투자협력 등 **기술 및 혁신협력의 창입**입니다.

미국의 원천기술, 우리의 ICT·응용기술을 활용한 AI, IoT 등 디지털 기술 분야의 교류 확대는 양국 미래 성장엔진 발굴에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과 美 신정부 공약 사이에 상당부분 교집합이 존재하는데, 이를 중심으로 중점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韓美 상호투자 등을 통한 韓美 인프라 협력도 美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포스트코로나시대 **기후변화 대응 등 그린협력의 창입**입니다.

코로나위기를 거치면서 기후변화 이슈는 더욱 더 중요해 졌습니다. 美 바이든 당선인은 '5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와 탄소중립을 위해 10년간 5조불 이상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정부도 지난 7월 그린뉴딜을 포함한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을 제시한 바 있고, 특히 최근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여 친환경 그린경제로 도약하겠다는 국가적 비전과 의지를 확고히 한 바 있습니다.

韓美 양국간 친환경차, 태양광, 연료전지 등 그린산업 협력을 통해 친환경·그린사회 건설을 함께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다자주의 복원 등 글로벌시스템 정상화의 창**입니다.

美 신정부는 국제통상, 환경이슈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다자주의적 접근을 중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계기로 약화된 글로벌 밸류체인이 복원되고
G20·APEC 등 **다자주의 플랫폼이 보다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도 미국과 함께 WTO 다자기반질서 재정비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코로나로 위축된 **국제교역**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세계경제 성장의 모멘텀이 살아나도록 최대한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마무리 말씀>

내외 귀빈 여러분!

창문 Window의 어원은 고대 바이킹 표현인 “**빈도가(Mindauga) 즉 바람의 눈**”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는 기원전 4,000년전 인류 정착 당시 움집안에 신선한
공기를 채우고자 하는데서 유래되었습니다.

美 신행정부 출범으로 **韓美 양국간의 협력의 창이 활짝 열리고**
국제사회에도 **새롭고 신선한 바람**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 향후 **韓美 협력방향, 국제시스템 신뢰회복**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의미있는 **지혜**가 모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국민경제 국제컨퍼런스」 개최 개요

□ 개요

- 주제: 「美 대선 이후 경제통상환경 변화 전망 및 한국의 대응방안」
- 일시/장소: '20.12.10(목) 8:00~13:30/ 포시즌스 호텔
- 참여: (주최) 국민경제자문회의
(주관) 대외연(KIEP), 한미경제연구소(KEI) * Korea Economic Institute
- 참석자: 제3기 위원, 전문가 등 50명 내외

□ 프로그램(안) ※ 진행자 : KIEP 미주팀 연구위원

시간	프로그램	형식
8:00~8:20 (20분)	개회식(Open Ceremony) · 개회사 :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 축 사 : 홍남기 경제부총리(5분, 영상 or 대면) / (영문 or 국문) · 환영사 : 김흥중 KIEP 원장, Kathleen Stephens KEI 소장	웨비나 (동시 통역 제공)
8:20~8:50 (30분) * 발표: 20분 Q&A: 10분	[기조세션] · 발표 : Robert Zoellick (하버드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위원 前 World Bank 총재) · Q&A	
8:50~10:40 (110분) * 발표: 20분×2 토론: 10분×3 Q&A: 40분	[Session 1] 美 대선 이후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변화 전망 · 사회 : 한홍열, 한양대 교수(국민경제자문위원) · 발표 1 : Chad Bown(PIIE* 선임연구원)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발표 2 : Derek Scissors(AEI** 상주학자) **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 토론 : Barbara Weisel(Rock Creek Global Advisors 상무이사), 국민경제자문위원 윤미경(가톨릭대 교수), 최석영(경제통상대사) · Q&A	
10:40~10:50 (10분)	휴 식 (Break Time)	
10:50~12:20 (90분) * 발표: 15분 토론: 10분×5 Q&A: 25분	[Session 2] 美 대선 이후 대외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 · 사회 : 송의영, 서강대 교수(국민경제자문위원) · 발표 : 서진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 국민경제자문위원 박해식(금융연 선임연구위원), 국민경제자문위원 노수연(고려대 교수), 왕윤종(경희대 교수), 이효영(국립외교원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명(미정) · Q&A	대면
12:20~12:30 (10분)	폐회(부의장)	
12:30~13:30 (60분)	오 찬	

□ [홍보계획] 사전·사후 보도자료 배포(KIEP), Youtube 생중계 및 녹화영상 게재